

< 조사당시 역촌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 치

역말 마을은 위도 36-43-40, 경도 127-00-40에 위치해 있으며, 온양역에서 유구방면으로 39번 도로를 따라 남동쪽 약 6km지점으로 가다보면 구온양을 경유하게 되고 계속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학교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곳이 바로 송악면의 면소재지인 역촌리(역말)이다. 현재 마을 중앙에 마을 가운데 39번 도로가 나있지만, 1년전 역말 입구에서 좌측으로 유구방면으로 가는 새 도로가 생겨 교통이 많이 편리해졌다.

이 마을은 역말 주변에는 우리 문화유산을 400여년간 지켜가고 있는 외암민속 마을과 불과 300m 거리에 있고, 피서객들이 즐겨찾는 강당골과는 1km정도로 모두가 역말을 거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오미니 마을은 위도 36-42-00, 경도 127-00-10에 위치해 있으며, 온양에서 39번 국도를 따라 오다보면 역말을 경유하게 되고 그곳에서 유구방면으로 1km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송남중학교 옆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 오미니라 불리고 바로 옆으로 송악저수지 방죽 밑에 있는 마을이 삼거리라는 마을이다.

2) 현 황

역말 마을은 남자 274명, 여자 261명으로 총 535명이 살고 있으며, 세대수는 150여호에 이른다. 면 소재지인만큼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상업 20%, 농업 80%에 종사하고 있다.

오미니 마을은 인구수는 남자 109명, 여자 119명으로 총228명이 살고 있고, 세대수는 68호에 이른다. 생업으로는 87%가 농업에 종사하고, 2%는 축산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1%는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 분	계	남	여

마을명			
역말 마을	535명	274명	261명
오미니 마을	228명	109명	119명

- 생 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상업	축산업	기타
역말 마을	100%	80%	20%	-	-
오미니 마을	100%	87%	-	2%	11%

역말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밭 19.6ha, 논 29.2ha이며, 농기계는 경운기가 가장 많으며, 트랙터, 관리기, 콤팩트, 건조기등으로 면적에 비해 보유량이 열악한 실정이다.

오미니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 22ha, 밭 12.8ha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트랙터등을 보유하고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역말마을	48.8ha	29.2ha	19.6ha
오미니 마을	34.8ha	22ha	12.8ha

역말 마을의 문화시설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각각 1개소가 있으며, 마을회관은 노인회관을 겸하고 사용하고 있다. 마을에 있는 기관들로는 역말 중앙에 있는 면사무소와 그 옆으로 송악 파출소, 그리고 70년의 역사가 있는 송남 초등학교가 있으며, 맞은편으로 우체국이 있고 좌측으로 농협이 자리하고 있다.

오미니 마을 역말과 마찬가지로 작지만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으며, 삼거리 마을에는 옛날 주재소라 하여 일제시대때 지금의 경찰서와 비슷한 기관이 있어 경찰들의 형포가 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오미니 마을에는 그리 오랜 역사는 안되었지만, 20년의 역사가 있는 송남 중학교가 있어 근방에 있는 중학생들이 이곳으로 통학을 하고 있다.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역말마을	2개소	1개소	1개소
오미니마을	2개소	1개소	1개소

- 기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면사무소	송악파출소	초등학교	우체국	농협
역말마을	5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오미니마을	1개소	-	-	1개소	-	-

대부분의 마을은 특정한 성씨가 한 마을에 터를 잡고 대대로 살고 있지만, 이곳 역말은 역이었던 마을이기에 오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각지에서 모여 들어 잠시 살다 떠나곤하여 성씨도 다양하게 분포한다. 성씨현황을 보면 이씨 22%, 김씨 17%, 최씨 4%, 윤씨 9% 기

타성씨들이 살고 있으며, 이씨와 김씨가 가장 많지만 이들도 마을에 처음 터를 잡은 성씨는 아니며,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골고루 분포를 하지만, 이곳 역시 농촌의 이농현상 탓인지 젊은층보다는 노령층이 가장 많다. 역말에는 70년의 역사가 있는 송남 초등학교가 있지만, 학생수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은 인근 동화초등학교가 학생이 적어 폐교를 하고, 송남초등학교와 통합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학생수는 적어지고 있다.

오미니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성씨분포 조사결과 윤씨 18%, 신씨 12%, 김씨 7% 기타 성씨 47%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연령층은 60대가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고르게 분포한다. 마을에는 교육기관으로 송남 중학교가 있으며, 그밖에 특별한 기관은 없지만, 일제시대에는 삼거리 마을에 일본인 주재소가 있어 그곳을 지나가는것을 꺼려할 정도로 일본 경찰들의 횡포가 심했으며, 해방후 지금의 면소재지인 역말 송악파출소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박씨	곽씨	최씨	신씨	이씨	김씨
역말마을	150호	8호	5호	6호	-	33호	26호
오미니마을	68호	2호	-	-	8호	3호	5호

윤씨	강씨	오씨	남씨	기타성씨
13호	-	-	4호	55호
12호	3호	3호		32호

- 마을의 최고령자

마을의 최고령자로는 김용만 할아버지로 올해 77세이시고, 아직까지는 손수 농사일을 하실만큼 건강하시며, 오미니 마을의 최고령자는 전양자 할머니로 올해 89세이시다.

3) 자연 경관

역말 주변으로는 외암민속마을과 휴양지로 알려진 강당골이 가깝게 위치하고, 마을 앞으로 온양의 명산 설화산이 우뚝 솟아 있으며, 우측으로 이지역에서 가장 높은 광덕산이 감싸고 있다. 송남초등학교 우측으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역촌교로 외암 3리와 경계이며, 다리 밑으로 강당골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면사무소 좌측으로 250년이 훨씬 넘는 느티나무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오미니 마을은 두 개의 작은 마을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마을 모두 도로 옆으로 자리하고 있다. 오미니 마을은 유구방면의 오미니 고개 밑으로 위치하고 삼거리마을은 저수지 밑에 모여 살고 있다. 삼거리 앞으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큰 냇가가 흐르고 있으며, 주변은 온통 산과 들판들 뿐이다.

4) 마을 변천과정

역말은 조선시대 시흥역터로 시흥도역승을 두어서 신창의 창덕, 예산의 일흥, 덕산의 금천, 면천의 순성, 당진의 흥세, 아산의 장시, 평택의 화천등 각 역을 관할하다가 그후 홍주의 금정역에 합병되었다. 이곳은 온양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조선때 시흥역이었으므로 역말, 역촌이라 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미리를 병합하여 역촌리라하여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역이라 하면 어디든 그러하겠지만, 누가 처음 터를 잡았는지 뚜렷하게 알수는 없으나 조선시대부터 이곳에 역이 있었으며, 분명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을 터이지만, 현재는 그 옛날 살던 사람들의 후손조차 없어 유래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다만, 누가 처음 터를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조선시대라면 지금으로부터 450년전인 것으로 보아 형성은 서기 1500년경

으로 오랜 역사가 있는 마을임에 틀림없다. 비록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90%가 30년이 넘게 살고 있지만, 실제 이곳에 정착한지는 그리 오래된 성씨는 없다. 그래도 이들 성씨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는 남씨로 현재 4대째 터를 잡고 살아오고 있으나 현재는 4호밖에 살고 있지 않다.

오미니 마을에서 윤씨, 유씨, 강씨 이렇게 세 성씨들이 120년전부터 터를 잡고 살았지만, 마을의 형성년도는 서기 1880년경 약 12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며, 정확히 세 성씨중 어느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는 알수 없으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터를 잡았다고 하며, 현재 윤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윤씨들이 주로 터를 이루고 산 것으로 보여진다.

6) 지 명

十 역말마을의 지명

- 역말 : 역촌리의 가장 큰 마을로 조선때 시흥역이 있었다 하여 역말이라 함
- 삼거리 : 역말 위쪽에 있는 마을로 길이 세갈래로 되어 있음.
- 동산 : 마을 뒷편에 있는 산으로 현재는 순복음교회가 지어져 있으며, 이곳에는 옛날 남씨들의 선친묘가 있었다 함.
- 평전들 : 역말 앞에 있는 넓은들을 말하며, 고종 때 참판 수당 이 남규가 을사보호조약을 항거하다가 예산고향에 돌아와서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의병 대장 민 종식을 숨겨준 혐의로 왜경에게 피검되어 무참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종시 항거하다가 이 들 냇가에서 참혹하게 피살되고, 그 아들 이 충구와 종 김웅길이 또한 항거하다가 함께 피살 되었음. 순절현장에 1986년 충남도에서 순절비를 세움.
- 시흥역터 : 역말에 있는 시흥역터를 말함. 이조초에 시흥도역승을 두어서 신창의 창덕, 예산의 일흥, 덕산의 급천, 면천의 순성, 당진의 흥세, 아산의 장시, 평택의 화천등 각 역을 관할하다가 그 후에 홍주의 금정역에 합병 되었음.
- 송악장터 : 1970년대까지 이곳 역말에서는 시장이 형성되어 2일,7장이 었음. 1970년까지 이어지다가 근년에 와서 자동 폐쇄됨.
- 역말다리(역촌교) : 역촌1리(역말)과 외암3리(새집매)와 경계가 되는 다리
- 느티나무 정자 : 역말 마을 중간에 심어져 있으며, 수명은 250년이 훨씬 넘는 것으로 소설가 방인근이라는 사람이 쓴 '마도향의 향불'이란 책에 이 느티나무가 나온다고 함.
- 면잠산 : 역촌리와 외암리의 경계에 있는 산. 모양이 누에가 자는 것 같다고 함.
- 이남규 순절비 : 조선 고종때의 참판 수당 이 남규가 을사보호조약에 항거하다 왜경에 필살되어 그의뜻을 기리기위해 1986년 충남도에서 그의 순절비를 세움.

十 오미니마을의 지명

- 오미니 : 역촌2리에서 가장 큰마을로 역말 위 남쪽1km지점에 위치한다.
- 삼거리 : 오미니 옆에 있는 마을로 예산방면 송악저수지 방죽밑에 위치함
- 군자봉 : 오미니 앞에 있는 산으로서 그리 높지 않으나 경관이 수려함.
- 무명교 : 역촌에서 오미니마을과 삼거리마을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있는 작은 다리

7) 전 설

十 남씨들의 전설(역말마을)

면잠산은 역말 뒷편에 있는 동산을 감싸고 있는 산으로 모양이 마치 누에가 잠을 자는 형태로 생겼다하여 면잠산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면잠산과 줄기가 이어져 작은 산을 이루고 있는 동산에는 옛날 남씨들의 선친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만해도 역말에는 남씨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가뭄이 들어 물이 부족해서 강당굴에서 내려오는 물을 돌려 논에 물을 넣어야만 하는데 동산이 가로막아 물을 돌릴 방법이 없게 되자 어렵지만, 면잠산과 동산이 이어진 부분을 잘라 수로를 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마을사람들은 줄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붉은 피흙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일이 있은뒤로 역말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남씨들은 하나 둘씩 떠나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면잠산과 동산이 이어진 줄기를 끊어 남씨가 망해 버린 것이라 믿

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남씨들이 이마에서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면잠산의 정기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十 오미니마을의 전설(오미니 마을)

오미니 마을에서는 특별하게 전해오는 전설은 없으나 마을의 유래처럼 옛날 마을 뒷산에 오미자가 많이 서식하여 다섯가지 맛이 나는 귀한 음식으로 왕의 수라상에 올랐다고 한다.

十 이 남규 열사의 순국에 관한 일화

이조 말엽의 이야기다. 나라가 허약해지자 힘이 강하다는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넘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소위 백성을 다스린다는 위정자들도 여러파로 갈라져서 아웅다웅 싸움만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넘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심이 있는 것이 뻔한 게 아니겠는가? 그들의 속셈도 모르고 백성들의 아우성도 모르는 채 위정자들은 다른 나라의 힘을 끌어 들여서라도 자기가 권력을 행사해야겠다고 정사에 마구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가까운 섬나라 일본이 힘이 강했던지 약살 빼앗든지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나라를 좀 먹기 시작 하였다. 백성들은 힘이 약해서 말을 못했고 아는 자인 위정자들은 싸움에서 이긴 친일파들과 함께 일본과 합방되기를 서둘렀다. 그때였다. 나라에서 벼슬로는 참의까지 지낸 이 남규라는 선비가 임금께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상소문을 올렸다. " 전하! 아무리 이 나라가 허약하다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섬나라 오랑캐들이 주상전하께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지위 높은 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기피하고 지위가 낮은 자는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강한자는 참고 약한 자는 겁내고 있으니 이 어이된 일입니까? 뒷골목의 어린 아이들도 불경한 자에겐 반드시 팔을 걷고 덤비는 것이 천성이거늘 주상전하를 모신 문무백관이 뒷골목의 어린이들만 못하다니...."

임금님을 모신 대감들이 조국에 대한 관심을 꼬집고, 섬나라 오랑캐에겐 우리나라 백성들이 따끔하게 버릇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상소문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우국적인 이 남규의 상소문도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했다. 민족의 저력은 힘이라고 말했다. 그 힘이 몇 사람의 나쁜 행동에 아랑곳 없이 주저 앉아 버렸다면 그 나라의 운명을 뻔한게 아닌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눈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이 남규 열사는 백방으로 뛰어 다니며 나라를 살리고자 외치고 다녔다. 자기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 바칠 수 없다는 야비한 벼슬아치들은 슬슬 꿈무늬를 빼기 시작하였고 정신이 돈 사람, 눈치만 보며 살려는 사람, 이런 쓰레기통에 담아야 할 사람들이 우굴대는 궁중을 벗어나서 그는 초야를 헤메었다. 초야엔 많은 우국지사들이 있었다. 드디어 서기 1907년 의병이 일어났다. 그는 이 기회를 꼭 성공시켜 나라의 정세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역부족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의병은 오랑캐의 군대와 그들의 앞잡이 군병들에게 무참하게 죽어 갔고 빼앗긴 조국을 찾겠다는 최익현 같은 분도 오랑캐에게 붙잡혀 갔다. 나라를 걱정하고 의병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을 때 그가 은거하고 있는 집으로 오랑캐들이 몰려 왔다. 그들은 건방지게도 어째서 의병 봉기에 가담했느냐고 다그쳤다. 이 남규 열사는 어째서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느냐고 맞섰다. 오랑캐들은 그를 묶어서 공주 감옥에 데려간다고 끌고 나오는 것이었다. 이 남규 열사는 생각했다. 저들에게 잡혀 가느니 차라리 그들과 싸우다 죽는게 옳다고...

그는 평촌 평창 천변에서 오랑캐들에게 반항하기 시작하였다. 어째서 너희들은 이 나라 백성을 무슨 권리로 잡아 가느냐고 덤벼 들었다. 오랑캐들은 그

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었다. 아버지가 죽는 것을 못보겠다고 아들이 덤벼들며 아버지 대신 나를 죽이라고 덤벼들었다. 잔인 무도한 왜놈들은 아들을 먼저 쏘아 죽였다. 이남규 열사는 소리쳤다. 섬나라 오랑캐는 제 땅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왜놈들에게 덤벼 들었다. 결국 오랑캐들은 이 남규 열사에게 총탄을 퍼부어 죽이고 말았다. 같이 잡혀가는 종도 가만 있지 않았다. 덤벼들며 싸웠다. " 너 이놈! 어째서 우리 대감을 죽이느냐?" 오랑캐들은 종마저 총으로 쏘아 죽였다. 지금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역촌평창 천변에는 이남규 열사 부자와 그 종이 함께 흘린 피와 열이 이 땅을 지키며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우리의 갈길을 말해주고 있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역말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로는 상조회와 마을 돈계가 있는데, 상조회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부모형제가 죽었을 때 도와주는 계모임이었으며, 마을 돈계는 마을에 처음 이사 오게 되면 쌀2말 또는 돈을 내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계로 그렇게 모아진 쌀이나 돈은 마을 운영 경비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애경사가 있을때면 마을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모여 상부상조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농촌의 인심이 남아 있는 마을이다.

오미니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이틀에는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데 정확한 연대는 알수 없으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으로 다른 마을과 지내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그리 엄격하지는 않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부정을 막기 위해 황토흙을 마을 입구에 세무덤씩 좌우로 놓고 이날만큼은 서로 싸우지 않고 피를 보지 않으며, 비린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산신제를 지내는 제관을 선정하는 방법은 생기복덕한 사람을 골라 지내게 하는데 집안에 경도(생리)나 부정한 일을 한사람도 있어서는 안되며, 산신제 지내기 사흘전부터 목욕 제개를 하여 몸을 깨끗이 한후에 산제사를 올리게 된다.

그리고, 청년회가 구성되어 마을의 애경사시 외지에서 있어도 연락을 하여 서로 돕는다고 한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十 이남규 열사

고종 때 참관을 지내셨으며, 호는 수당으로 을사보호조약을 항거하다가 예산고향에 돌아와서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의병 대장 민 종식을 숨겨준 혐의로 체포되어 무참한 고문을 받으시면서도 종시 항거하다가 역촌리 들에서 피살되었음.

10) 종교단체

역말에는 자리하고 있는 종교로는 대한 순복음 교회인 송악 순복음교회가 있으며, 신도수는 95명에 이른다.

오미니 마을에는 자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11) 공장현황

역말은 송악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슴 육골죽을 생산하는 가공 공장이 있어 전국 각지에 특산물로 판매되고 있다.

오미니에는 다른마을보다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경기침체로 모두 폐업을 하게 되었다.

力 (주)영동산업 : 역촌 산11-6번지에 사업장이 있어 묘비석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이었으나 현재 휴업중이다.

力 장천무역 : 역촌 199번지에 위치하여 원단제조업을 하였으나 현재 폐업하였다.

力 태영건설 : 역촌 506-84번지에 위치하여 벽돌, ब्ल럭을 생산하였으나 현재 폐업하였다.

12) 마을의 특성

역말은 먼 소재지인만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다른 마을보다는 소득이 많은 편이며, 역말 앞에는 평전들이 있으며, 상업에 종사하지만 시골의 넉넉함이 있고 마을사람들간에 서로 돕는 정이 아직도 남아 있다.

오미니 마을 역시 시골의 순박함이 남아 있으며, 작은 마을이지만 애경사가 있을 때 멀리서까지 고향으로 돌아와 돕는 상부상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적인 마을이다.